

2005 아시아 의학 교육 학회 이유 탐색 (AMEA 2005)

의학교육학과, 응급의학교실 윤 유 상

가. 시작하며

2005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제3회 아시아의학 교육학회 학술대회(AMEA 2005)가 열렸다. '아시아에서의 의학교육: 전망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20개국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미국 의학 교육 학회(AAMC)에 비해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아시아 연자들외에도 미국, 유럽 연자들의 발표도 포함되어 의학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알 수 있었다.

나. 학회에서 강조된 내용들

이번 학회에서 논의되었던 의학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다양하였으며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았다.

1. 평가(assessment)에 대한 논의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역시

다른 주제에 비해 높은 참석률을 보여주어 많은 관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학생 평가가 대부분 필기시험(written test)에 치중해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도 다양하고 적절한 평가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더욱이 2008년도부터는 실기 시험이 의사국시에 도입되는 문제와 더불어 평가 도구의 개발은 시급한 문제라고 느껴졌다.

2. PBL에 대한 논의

PBL은 그 동안의 시행 결과에 따라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었다. Full PBL, Mixed PBL, 인터넷을 이용한 Problem-Based e-Learning이 언급되었다. 싱가포르 연자인 Jacobson 교수는 PBL의 교육 효과는 우수하다는 발표를 하였다. 반면에 PBL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의과대학에서는 그 동안 PBL 수업을 받고 졸업생 중 의사로 활동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PBL의 교육 효과를 평가하여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의외로 PBL이 훨씬 낫다는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았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임을 보여 주었다.

3. Clinical Skills에 대한 소개

1999년 미국 Institute of medicine에서 출간한 '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에서 술기 및 simulation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임상 술기 및 진료 능력의 함양을 위한 대안으로 skill lab과 simulation center를 설립하고 있었다. 각 나라별 임상술기교육에 대한 현황이 발표 되었는데 그 중 마스트리히 대학의 잘 짜여진 skill lab에 대한 소개가 인상적이었다. 마스트리히 의과대학생들은 임상 실습에 앞서 필요한 술기들을 충분히 연습한 뒤 임상 실습에 나가고 있었다. 그 외에 일본, 태국, 필리핀의 skill lab 구성 상황과 교육 현황을 소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 의과대학의 시뮬레이션센터(START)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임상시험수기센터가 소개되었다. 국내에서도 임상술기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시절 여러 술기들을 연습할 skill lab이 없다는 사실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것 같다.

"The secret of the care of the patient is caring for the patient!"

- Francis Peabody -

그리고 communication skill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의사는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이것이 communication skill이며, 환자-의사 관계에서 communication skill은 rapport 형성의 중요한 열쇠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병원에서 가끔씩 발생

했던 환자 또는 의료인과의 갈등 상당 부분이 communication 능력의 부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4. Curriculum development에 대한 논의

curriculum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의학교육의 방향이 전통적인 방식(Traditional Medical Education, TME)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 한 연자는 강의 중심의 전통적 교육 방식을 '3R'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Remember, Recall, Regurgitation'을 말한다. 즉 암기하기, 기억해내기(시험), 시험 끝나면 모두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실로 필자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라 쓴웃음이 났다.

미국 연자인 Wojtczak 교수는 '의과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국제적 최소기준' 7가지 항목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의학교육이 포괄해야 할 영역은 다음과 같다.

- (1) Professional Values, Attitudes, Behavior and Ethics,
- (2) Scientific Foundation of Medicine
- (3) Clinical Skills
- (4) Communication Skills
- (5) Population Health and Health Systems
- (6) Management of Information
- (7) Critical Thinking and Research

임상 의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양하게 많은데 비해 우리의 의학 교육은 지식 측면에 너무 치중해 있지 않았나 하는 생

각이 들었다.

5. Faculty Development에 대한 논의

싱가폴 연자인 Gwee 교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위한 의과대학의 의무로써 professional development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지식, 술기,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 교수들은 새로운 방법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의과대학은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faculty development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것은 학술 기관의 교육적 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 Wilkerson and Irby -

이렇게 까지 faculty development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Gwee 교수는 다음과 같이 연계 관계를 설명하였다. faculty development → 교수의 교수법 향상 → 의학교육의 질 향상 → 배출되는 의사의 질 향상 → 질 높은 의료의 제공 → 국민 보건 향상 → 국가적 경제 이득으로 이어진다는 것. 즉 faculty development는 교수로서의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업(business)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6.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의 강조

의학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변화하는 최신 현대 의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

하는 문제일 것이다. 홍콩의 Tang 교수는 professional development를 강조하였는데, 그 동안의 CME(continuous medical education)처럼 강의 위주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CPD)를 제안 하였는데 이는 지식뿐 아니라 skills과 competencies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료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표준화된 의료행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CME도 강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medical practice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 마치며

이번 아시아 학회를 참석하면서 줄곧 느낀 것은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 국 모두가 의학 교육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내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발 맞추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학 교육 6년을 마친 학생들이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본 술기 능력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물음에 의문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학생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물론 한국의 의료 현실이나 교육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쉽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금방 얻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과는 과거의 투자 결과이며 미래의 성과는 현재의 투자에 달려있기에, 의학 교육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